



어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특별한 명령으로 금하셨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 혹은 불구자 등 자기보다 못하기 때문에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상대라도 하나님은 마음대로 저주하는 것을 금하셨다.

사람들에게 저주를 금하신 것은 저주가 그 자체로 효력을 나타내어 세상이 저주로 가득하고 인간사회가 저주로 망가질 것을 염려하셔서가 아니라, 저주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저주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한 저주는 마음 속의 불만과 악을 입으로 뱉어 내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저주하는 사람만 계속 망가질 뿐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저주는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아니며 사탄이 사용하는 삶의 파괴력과 해악력을 가진 무기도 아니다. 아무렇게나 떠다니다가 저주받은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형편이 되면 손살같이 그의 삶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그런 무인격적인 저주를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세상을 사탄에게 맡기지도 않으시고 사탄의 저주가 활개치도록 방관하지도 않으시며 이 세상은 마귀들의 왕국이 아니라 사람들이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며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 하나님의 사역이 부각된 성경적 증거들

하나님의 최초의 저주는 뱀에게 향해졌다. 그리고 하와와 아담에게로 이어졌다. 저주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내용 그대로 되었다. 이 기록에서 하나님께서 저주가 대물림되는 그런 영적 질서를 세우셔서 그 저주의 힘으로 뱀에게 여자와 남자에게 그리고 땅에 계속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암시

는 어디에도 없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세상과 인생을 그렇게 다스리시는 것일 뿐이다.

이 최초의 저주 사건은 가계저주론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계저주론과 가계치유론을 강력하게 밀하려 했다면 사실 이 사건이야말로 가장 힘있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계저주론과 가계치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주의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만 이 사건을 인용할 뿐 더 이상의 언급을 피한다. 그 이유는 가계치유론을 주장하며 죽음 등 하나님의 최초의 저주를 치유해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세상과 인생을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복음을 통하는 길 밖에 달리 없다.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사건을 살펴보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노아의 말은 잠시 후 “하나님께서 가나안이 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창 9:26)는 말로 재설명되었다. 노아는 가나안을 향한 자신의 저주가 그냥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구절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저주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노아에게서 곧바로 가나안과 그의 후손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노아의 저주를 들어주신다면 가나안은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었을 것이다. 저주가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친다.